

옛 성매매업소, 성평등 실현장소로

전주시·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커먼스필드' 현판식 리모델링 거쳐 탈바꿈... 국내 최초 사회혁신공간으로 문 열어

과거 여성인권이 유린된 공간인 성매매업소 건물이 시민들이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8일 서노송예술촌 내 매입성매매업소 5호 건물(완산구 물왕명3길 7)에서 김양원 부시장과 박병술 전

시의회 의장, 박선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의 사회혁신 지역거점 소용협력공간인 성평등전주 커먼스필드(이하 성평등전주)의 현판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사회혁신 소용협력공간 1호점으로 문을 연 성평등전주는 전주시민 누구나 나와 이

웃의 삶을 바꾸는 사회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성평등전주에서는 향후 성평등의 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성평등 기획 강좌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성평등 생활연구 △성평등 활동가의 네트워크 파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용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산미촌 내 성매매업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날 사회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했다. 현재는 입주 조지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입주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선희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공간이 성평등활동의 플랫폼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감동과 의미가 크다"면서 "성평등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고, 연대하며, 새로운 상상과 도전을 통해 전주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로 만들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8일 서노송예술촌 내 매입성매매업소 5호 건물(완산구 물왕명3길 7)에서 전국 최초의 사회혁신 지역거점 소용협력공간인 성평등전주 커먼스필드(이하 성평등전주)의 현판식을 가졌다.

첫마중길에 가을을 담아

전주시, 첫마중길 예술제 개최

거리로 따라 늘어선 나무 위로 가을이 내려앉은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예술축제가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센터장 박진희)는 19일 옛 한양주유소에서 명주골네거리까지 첫마중길 구간에서 전주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첫마중길 예술제-가을을 담아'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과거 자동차만 가득했던 대로에서 사람·생태·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광장과 가로수길로 탈바꿈한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첫마

중길 예술제는 △공연 존 △무료체험 존 △플러마켓 존 △지역농산물 존 △도시재생 전시 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졌다. 먼저 행사구간 양 끝인 옛 한양주유소 앞과 명주골네거리 인근에 마련된 공연 존 2곳에서는 퓨전국악과 비비이, 악기연주마술, 댄스, 보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농산물 존에서는 전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운영됐으며, 플러마켓 존에서는 수공예품과 의류 등이 판매됐다. 특히 도시재생 전시 존에서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치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전시가 진행됐으며, 무료체험 존에서는 전주역의 지역성을 살린 가짜모형 만들기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첫마

공동체 이익·나눔 실천

전주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지역기업 40곳 생산품 판매

전주시가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를 열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모델로,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2019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이하 박람회)를 개최했다. 마을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는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4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했다.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사회

적경제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놀이마당 △사회적경제 청춘마이크 △사회적경제 창업상담소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등도 운영됐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부스를 마련, 관객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일원에서는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현장 이벤트로 스탬프투어도 진행됐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박람회가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에 더욱 도움을 주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콩나물의 안전성 재확인

GAP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전주시 특산품인 전주콩나물이 안전한 식재료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대표 양갑영)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8명의 조합원으로 출자한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10월 GAP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았으며, 현재 전주지역 200여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주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하고 있다. 또한 법인은 종가집, 초록마을, 삼백집, 학교급식 등에 전주콩나물을 납품해 연간 37억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농가와 소비자들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장원자가 펼쳐낸 역사의 향연

서울 개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 대사습던(傳) 성료'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악 대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들의 소리가 서울에서 울려 퍼졌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지난 17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명창들을 중심으로 준비한 '전주 대사습던(傳)'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대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서정금 명창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문을 연 이날 공연은 '이 날 모였든 사람들은 모두가 내 일흔을 기억하여 주더이다'를 주제로 총 10개의 국악공연이 펼쳐졌다. 세부적으로는 △남도민요(양은주, 양은희, 김나영, 서정민, 정수인) △태평무(김연자, 이은덕, 조성란) △강정숙의 고제 가야금병창(강정숙, 유인숙, 박연하) △대사습, 찬란한 역사(정명숙) △경기민요(이호연, 김명순, 이기욱, 김영미, 이승은, 김보연) △



단막창극(송재영, 김학용, 나은영) △한량무(이서운) △남자 명창들의 농부(박성우, 정승준, 조정규) △전주 합창마을(김형태 외10명) 등이 국내·외 관객들과 만났다. 특히 이날 공연은 전통 공연과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들의 흥겨운 소리, 관객들의 높은 호응이 더해지며 서울 남산골의 가을을 국악의 향기로 물들였다. 황근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공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더욱 발전된 전주대사습놀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구마을 이음축제' 성료

전주시가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난 18일 풍남문광장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지구마을 이음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모여 행복한 사회, 함께여서

더 좋은 축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한국음식을 포함한 다문화 음식체험 5개소 △다문화 소품 및 전시 2개소 △건강상담 △풍선아트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졌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

우리 모두와 함께 상생하고 모두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단 및 제6대 대표회원”

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기호성	운영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윤일남	대표회원 김지원	대표회원 김창수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정영주
직전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김만열	운영위원 고상범	운영위원 이용규	대표회원 고두영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조기선
부회장 라규환	윤리위원 김성민	운영위원 김영량	운영위원 이재선	대표회원 고원석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유병수	대표회원 조희곤
부회장 양순기	윤리위원 김양희	운영위원 김영욱	운영위원 이진일	대표회원 권상민	대표회원 김형모	대표회원 유성희	대표회원 최희철
부회장 박종완	윤리위원 나춘균	운영위원 김용태	운영위원 임재훈	대표회원 권상민	대표회원 김형주	대표회원 이기열	대표회원 최경선
감사 소재철	윤리위원 문길천	운영위원 김종원	운영위원 장용준	대표회원 김광현	대표회원 남옥이	대표회원 이동규	대표회원 최용호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박형식	운영위원 박영자	운영위원 정준수	대표회원 김대수	대표회원 라형연	대표회원 이민규	대표회원 최용환
원로회원 이흥규	윤리위원 배문식	운영위원 배진석	운영위원 조규형	대표회원 김문성	대표회원 박하명	대표회원 이성모	대표회원 한경원
원로회원 김승권	윤리위원 송화중	운영위원 송영식	운영위원 채도성	대표회원 김병학	대표회원 박현이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한종원
원로회원 김승원	윤리위원 이공희	운영위원 안장환	운영위원 최이석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복남근	대표회원 이장균	대표회원 한지훈
원로회원 김승희	윤리위원 이윤범	운영위원 윤석	운영위원 하태종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창준	대표회원 황수원
원로회원 이정기	윤리위원 진준욱	운영위원 윤선화	운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서만호	대표회원 이해훈	대표회원 황재준
원로회원 박병도	윤리위원 진준모	윤리위원 최산성	윤리위원 최현호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송재철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황효영
원로회원 김승수	윤리위원 최산성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최현호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송재철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황효영
원로회원 이흥근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최현호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송재철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황효영
원로회원 조병두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최현호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송재철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황효영

CAK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